[자연철학이야기 대담녹취 11-1] 제10장. 온전한 앎 (1)

2020년 11월 30일. 녹색아카데미 http://greenacademy.re.kr

이 자료는 녹색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는 '장회익의 자연철학 이야기' 대담영상에 대한 녹취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의 책『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녹색아카데미 메인 페이지와 자연철학 세미나 게시판를 참고해주세요.

녹색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녹취록 전체 목록 : 자연철학이야기 대담영상 & 세미나

자연철학이야기

-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제10장.온전한 앎 (1)**
- **다룬 주제들**
  1. 현대의 우리에게 태극도설이 가지는 의미
  2. 근원적 물음 : 나는 누구?
  3. 가능한 대안 : 온전한 앎
  4. 심학 & 태극도설
  5. 태극도설 요지와 해석

▷ 녹취 시작

- 명조체, 구분점 부분 : 장회익선생님 말씀

〈최〉 최우석 질문
〈황〉 황승미 질문

1. 현대의 우리에게 태극도설이 가지는 의미

〈최〉 10장은 9장처럼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태극도설을 이렇게 해석하신 것이 대단히 흥미로웠다. 뫼비우스 띠로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재미있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태극도를 보니까 정말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졌다. 그리고 문장 중간에 그림 하나하나를 놓고 말을 풀어가는 것이 상당히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태극도설 이외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 그 시기 또는 그때보다 조금 전 시기, 그게 아마 한 1000년 전에 나온 걸텐데, 당시에 동양에서는 간단한 도형 구조를 가지고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겼다,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하는 생각이 꽤 퍼져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태극도설도 아마 그 전에 나왔던 몇 가지 도식들을 다시 철학적으로 음미하고 도식을 통해서 가장 간결하게 우리 우주와 삶에 대해서 정리해보자하는 생각을 구현한 것이다.

- 다행히 주자를 비롯한 신유학자들, 성리학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태극도설을 중요하게 봐서 이것을 바탕사상으로 채용해왔다. 그래서 천 년 이후, 공자 시대 말고, 근래 유학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체계 속에서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삶의 지침을 찾겠다는 시도를 한 것이다.

- 그 전까지는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면 끝이었다. 그런데 태극도설은 어떤 이론적인 틀에서 그 틀의 기본 바탕으로 채용된 것이(어서 다르)다.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은 성학십도의 첫 자리에 태극도를 놓았다. 태극도설을 지금도 우리가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 우리가 배울 점은 (학문하는) 자세이다. 태극도설 자체가 현대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교훈을 준다기보다는 그런(통합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정신으로 앎을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자세를 본받을 수 있다.

-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태극도설 이상으로 나아가기도 어렵지 않았나 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태극도설에 대해서 현대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번역이라고 할까, 현대어로 정리해본 것이 마지막 장 10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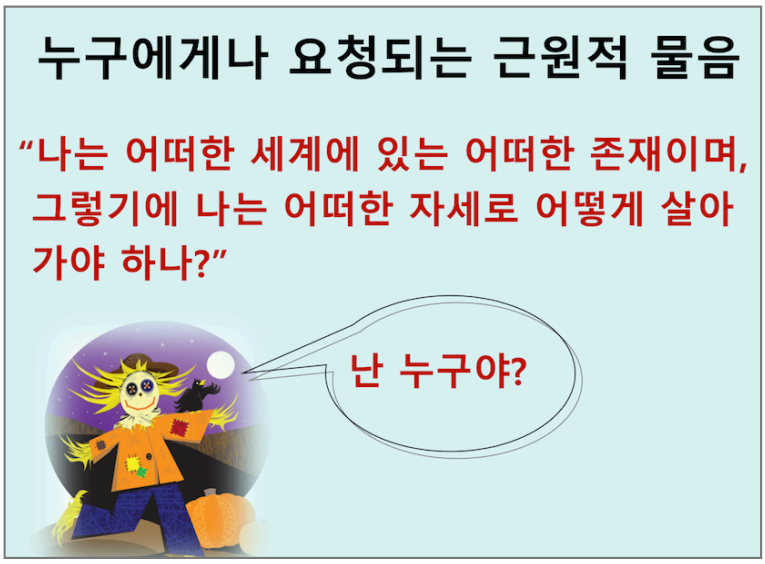
〈최〉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당대의 최신 우주이론, 물리학이론을 가장 간결하고 가장 아름답게 전달해서, 전문가들이 아니라 당대의 교양인들이라면 모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보자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 그렇게 볼 수 있다.

〈최〉 지금으로 보면 담대한 시도같다.

- 그렇다. 적어도 그때의 학문이 그랬다. 이것이 일단은 완성된 형태다, 우리 삶의 기본 지침이다하는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학문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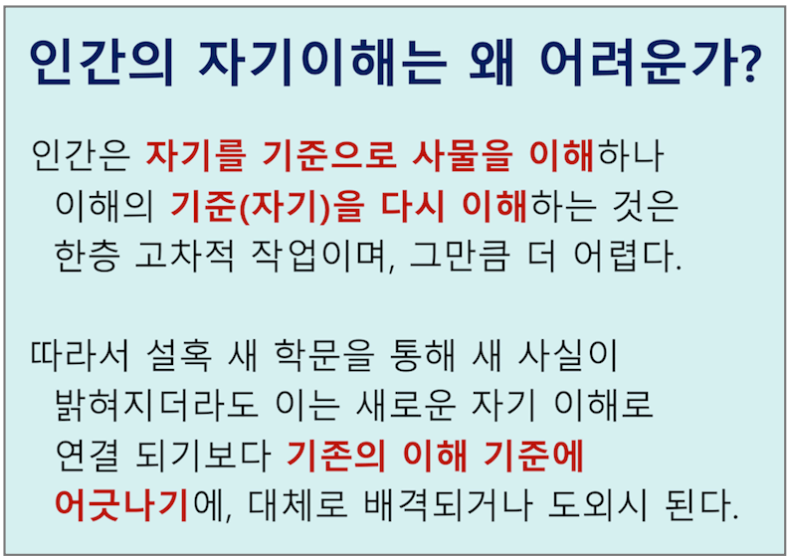
2. 근원적 물음 : 나는 누구?



[그림 1] 근원적 물음 : "난 누구야?"

〈최〉 그림1에서 '근원적 물음'은 기본적으로 성학십도에서라든가 고전학문의 기본 입장, 즉 세계에 대한 이해와 나 자신의 삶의 길을 일치시켜서 이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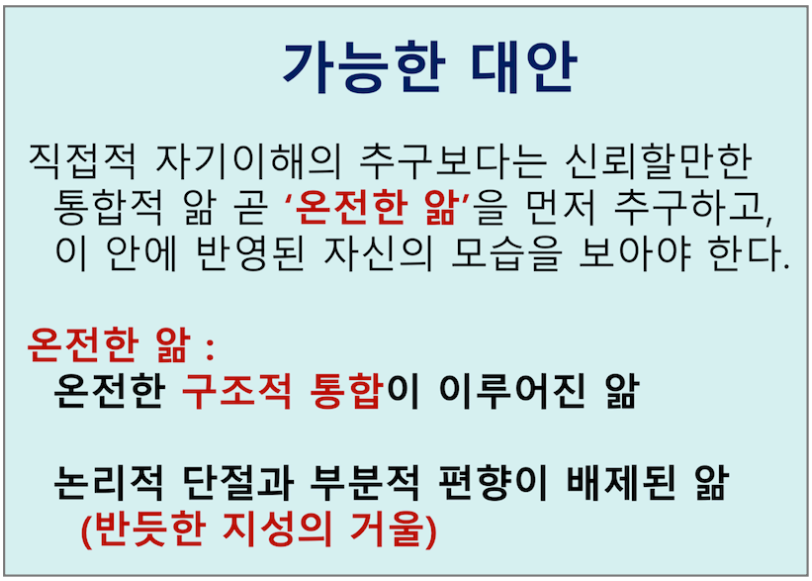
- 꼭 그때 그 사람들이 문제로 삼았다는 것만이 아니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세계와 나에 대한 물음이 앎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맞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물어야되는 근원적 물음이다.
-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나이다. 내가 나 자신만큼 잘 아는 게 없지만, 가장 모르는 게 또 나이다. 내가 도대체 뭐냐? 참 큰 수수께끼이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인간의 자기이해는 왜 어려운가?

- 그래도 가장 합당한 것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그림 2, 두 번째 단락). “새 학문을 통해 새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것이 자기 이해에 연결되기 보다는 기존의 이해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격하거나 도외시한다는 것이다.” 일단은 ‘나’가 기본이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바로 ‘나’가 된다. 그래서 나와 맞지 않으면 벗어나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나’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 ‘나’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사물을 이해하지만 그 기준(자기)을 다시 이해하는 것은 한층 고차적인 작업이며, 그만큼 더 어렵다.

3. 가능한 대안 : 온전한 앎



[그림 3] 가능한 대안

- 그래서 가능한 대안으로 ‘온전한 앎’을 추구해보자하는 말을 내가 했다. ‘온전한 앎’은 간단히 말해서 ‘온전한 구조적 통합이 이루어진 앎’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논리적 단절과 부분적 편향이 배제된 앎이다. 반듯한 지성의 거울이라고 볼 수도 있다.
-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겨 있는 믿음직한 가장 온전한 앎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나를 봄으로써 비로소 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파악할 때, 만약 거울이 없다면 일생 동안 나는 내 얼굴을 못 본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지만, 나만은 내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 나의 숙명이다.
- 그러나 거울이 있으면 좀 달라진다. 지성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반영된 세계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앎이 필요하다. 거울이 반듯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곡이 없는, 단절과 편향이 없는 앎이 온전한 앎이다.

〈최〉 그 말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앎들 사이에 상충하는 것 없게 매끄럽게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가?

-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충하는 게 있으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거다.

〈최〉 부분적 편향은 무슨 의미인가?

- 어느 한 부분은 과장해서 크게 보고, 나머지 다른 것들도 똑같이 중요한데 작게 조금만 반영하는 것이 부분적 편향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다 비슷하게 중요성을 가지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은 커보이기도 하고 자기한테 가까운 것이 더 중요해보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 이런 굴곡, 거울로 치면 울룩불룩한 그런 것이 없는 앎, 그런 것이 온전한 앎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보면 뭐가 온전한 앎인지 알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 자체만으로 보면 틀리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걸 확대하고 큰 것을 축소한 것이 돼서 잘못된 앎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앎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최〉『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에서 추구하듯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생명과 삶과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두루 갖춰지되 상충하지 않게 정합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을...

- 그런 것에 가장 가까운 앎이 '온전한 앎'이다.

〈최〉 그렇게 정합적으로 나 자신을 이해해야 기준이 신뢰할만하다는 말씀인가?

- 그렇다.

〈황〉 여기에 연결지어서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는 앎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스피노자, 데카르트와는 달리 상대, 너를 같이 넣어서 설명하신다. 8장에 보면, 나의 주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너를 같이 끌어들여서 내가 이렇게 의식하는 주체가 있는 것을 보니 너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나라는 주체를 너에게 넣을 수는 없지만 너라는 주체를 내가 인식하면서 나한테 가져와서 우리라는 새로운 주체를 만들고 더 큰 인식의 주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에서 다시 온생명의 온우리라는 더 큰 인식 주체로 나아가는 데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하나, 그것은 집합적 지성이라는 과학으로 소통을 해서 그런 큰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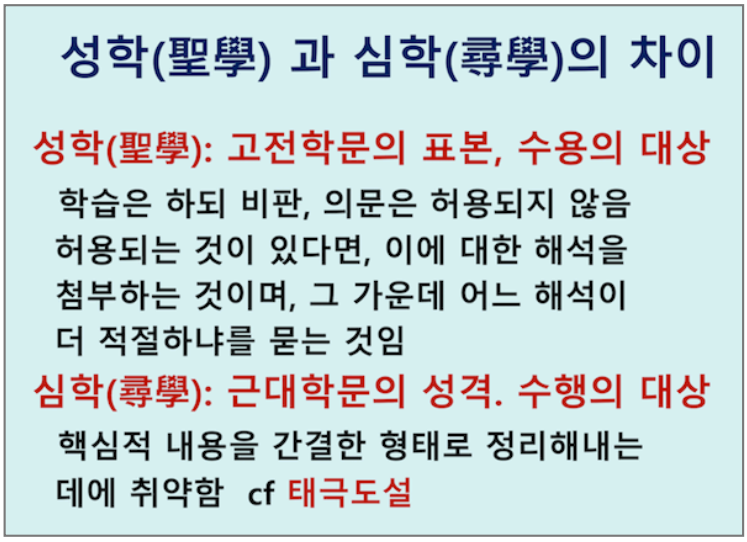
- 집합적 지성을 통해서 온생명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다. 내 생명이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온생명을 떠나서는 내가 있을 수 없고 내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온생명의 일부이고, 온생명이라는 큰 나로 갈 수 있는 길이 집합적 지성을 통한 온생명의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황〉 인식 주체가 커가는 데 있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소통을 통해서 편향이 배제된 앎을 가질 수 있나?

- 소통은 앎의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소통없이 앎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까 앎에서 얘기했지만 정보가 계속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집합적 지성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왔다갔다 해야 된다. 온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런 집합적 지성을 통해서 파악이 되니까, 당연히 그 안에 소통이 들어가는 것이다.

4. 심학 & 태극도설



[그림 4] 성학과 심학의 차이

〈최〉 선생님께서는 심학십도라고 하셨다. 여기서 '심'은 찾는다는 뜻인가?

- 그렇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성학과 심학의 차이를 다시 적어봤다. '심'은 찾아나가자는 뜻이고, '성학'에서 '성'은 이미 성인들, 시대의 위대한 분이 알려준 내용이라는 뜻이다. 근대학문의 약점은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한 형태로 정리해내는 데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태극도설이 간결한 정리의 대표적인 것이니 그것을 먼저 한번 보자, 우리는 그러면 태극도설에 대응하는 것으로 어떻게 간단히 정리해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하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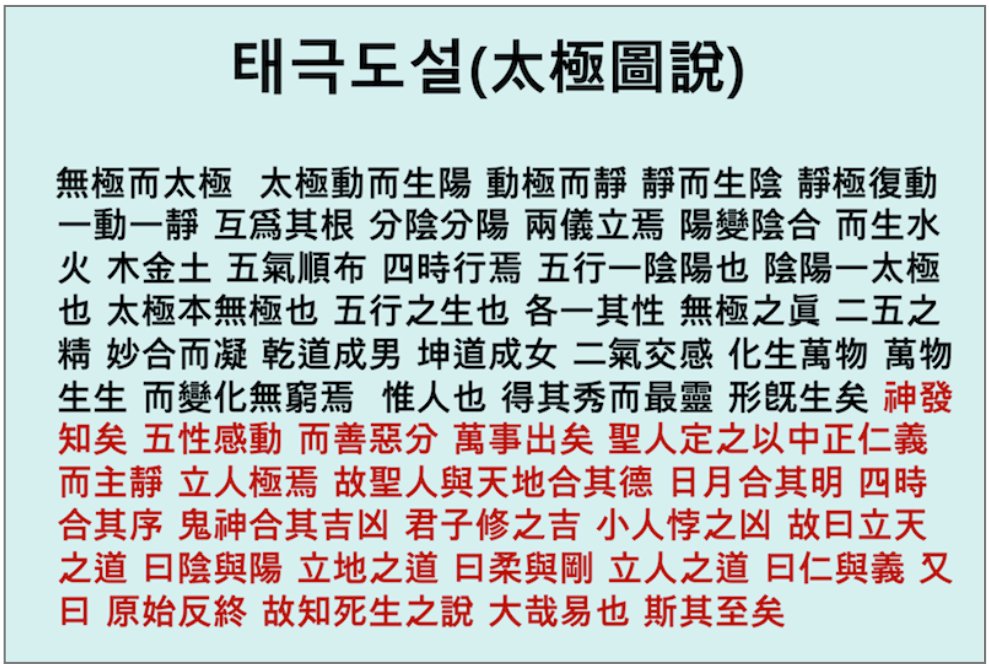
[그림 5] 성학십도와 태극도설

[그림 6] 태극도

- 염계 주돈이, 이 분이 태극도를 만들었다. 그림5에서 '제 일 태극도'라고 돼있는 것은 성학십도의 제1도라서 그렇다.

〈최〉 그러면 태극도는 이 하나의 그림으로 끝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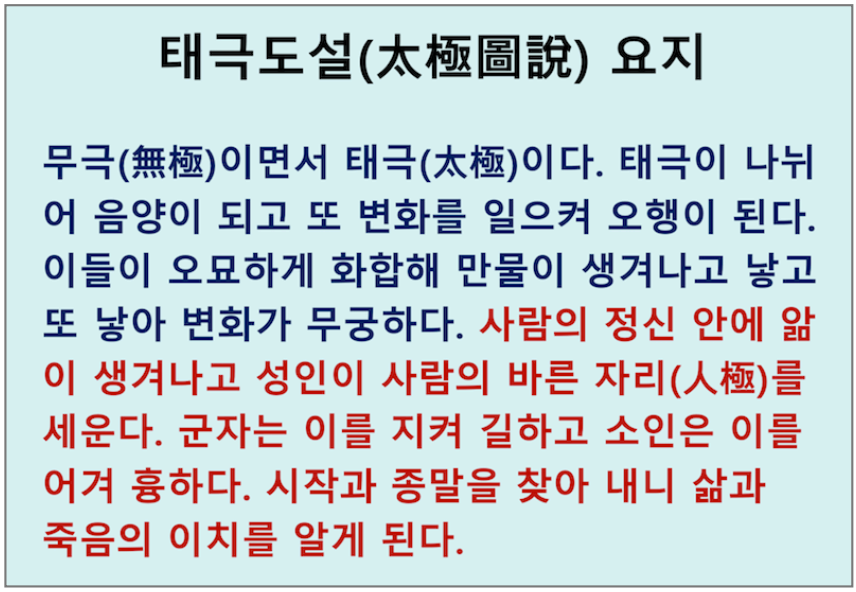
- 태극도는 이것으로 끝이고, 여기에 대한 해설이 태극도설이다. 그 후에도 수많은 해설이 나온다. 그림 7이 태극도설이 전부이다.



[그림 7] 태극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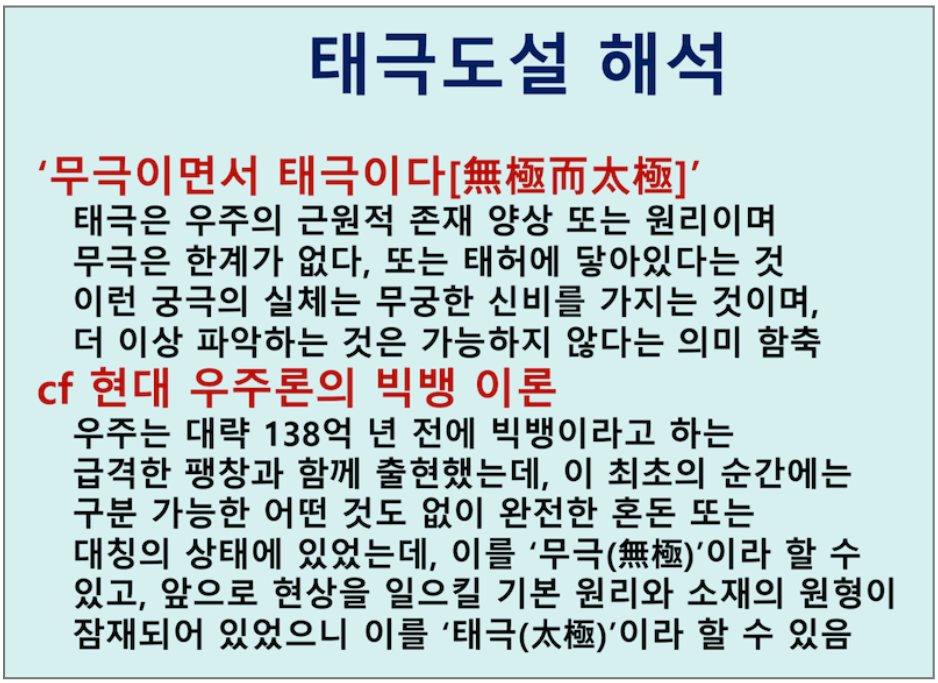
5. 태극도설 요지와 해석

- 태극도설의 글 하나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담았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장회익 버전의 태극도설 요지를 그림 8에 담았다.



[그림 8] 태극도설 요지

- 그리고 각 구절에 대한 해석을 보자. '무극이면서 태극이다'는 유명한 말이다(그림 9). 이 구절에 대한 수없이 많은 해석이 있다. 이 표현(무극이면서 태극이다)을 빅뱅의 해설로 쓰면 딱 맞다. 이분이 빅뱅을 알아서 쓴 건 아니지만, 만약에 빅뱅을 알았다면 이렇게 썼을지도 모른다.



[그림 9] 태극도설 해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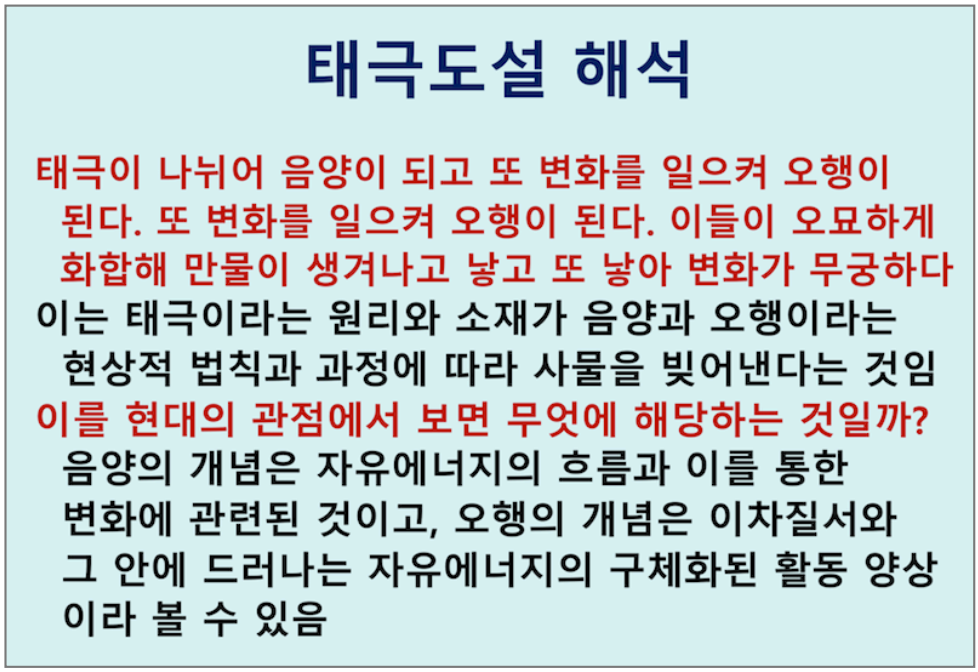
- 너무 심각하게 연결지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좋겠다.

〈최〉 태극이라는 말은 워낙 친숙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다. 여기서 '무'는 없다는 뜻이고 '태'는 크다는 뜻인데, 여기서 '극'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 극한, 최고 이런 뜻이다. 인극, 즉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라는 말도 있고, 태극은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고, 끝없다 무궁하다는 의미에서 무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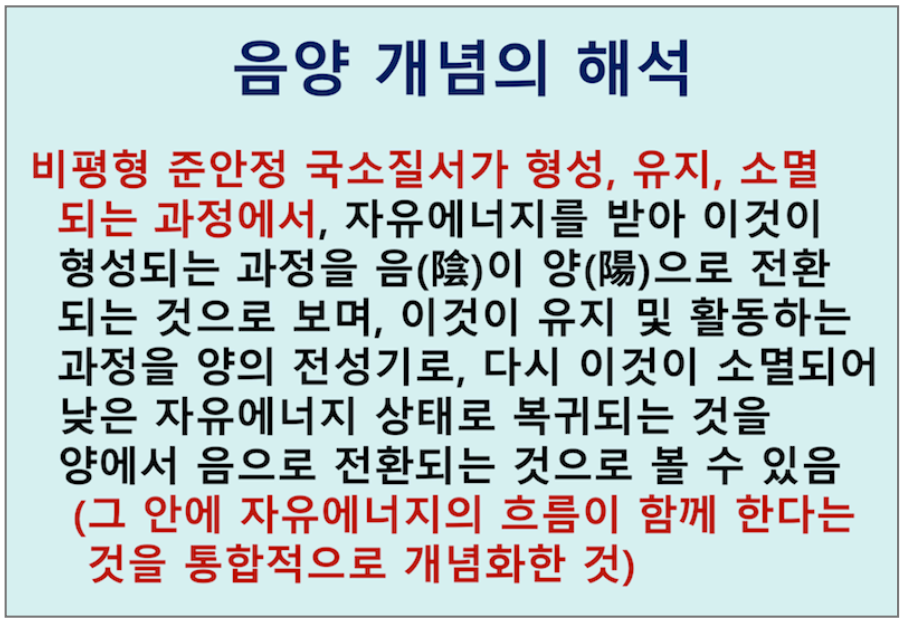
〈최〉 무극은 분화가 없고 이쪽 극이나 저쪽 극이 없이 섞여있다고 한다면, 태극은 뭔가 나뉘어져서 정리정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 그런데 태극은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태극이 나뉘어져서 음양이 나온다, 이렇게 간다. 태극은 음양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모든 것의 현황이 나타나기 전에, 모든 질서가 하나에 담겨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림 10] 태극도설 해석 (2)

- 그림 10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태극도설을 굳이 연결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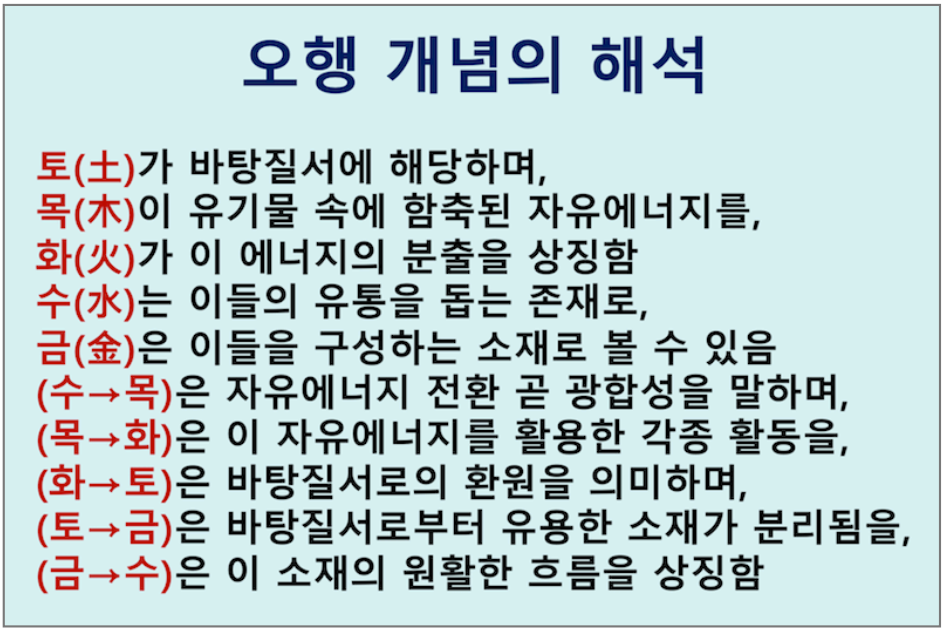


[그림 11] 음양 개념의 해석

- 그림 11에서 '음양 개념의 해석'은,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알고 썼다면 이런 의미를 지니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다. 물론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썼다는 건 말이 안되지만, 현재 우리가 볼 때에 그런 내용을 직관을 통해서 파악했다고 말해서 나쁠 게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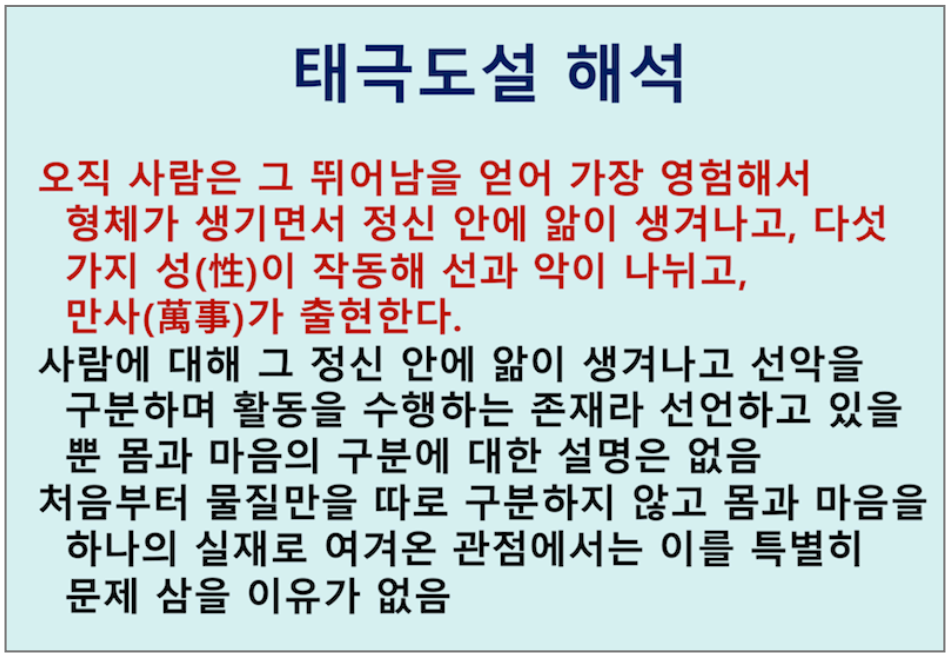
〈최〉 음양에 대한 다른 해석들은, 대비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한다면, 선생님의 해석은 굉장히 독특하다.

- 내 책의 관점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연결 시켜본 시도라고 보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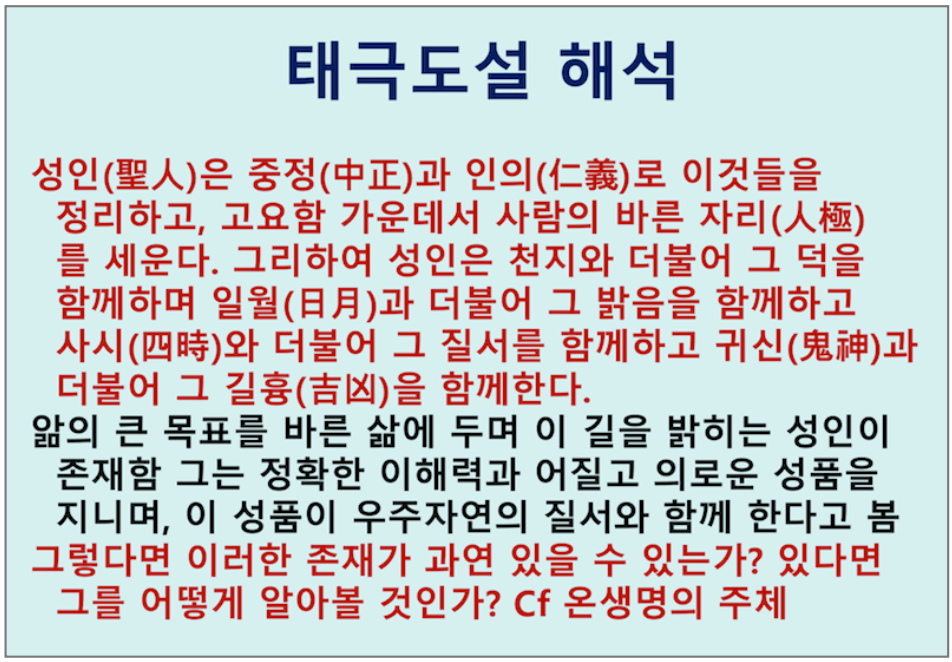
[그림 12] 오행 개념의 해석

- 오행의 다섯 가지, 토목화수금이다. 달력에 있어서 외우기 쉽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는 각각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림 12처럼 오행을 해석하면, 우리 현대인으로서도 음양오행의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서 적어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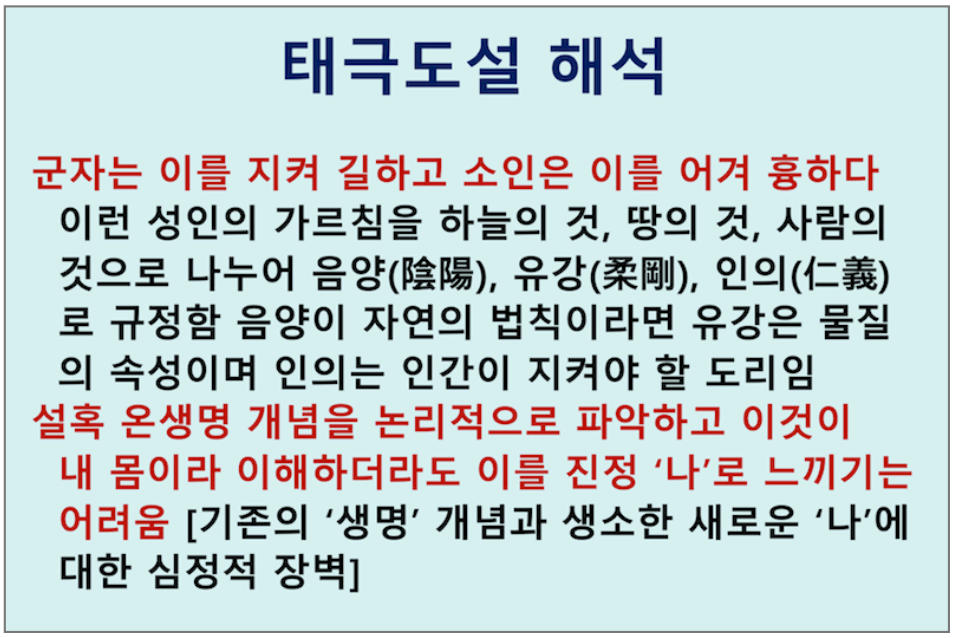


[그림 13] 태극도설 해석 (3)

-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태극도설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처음부터 몸과 마음을 구분 안 하고 있다. 그림 14는 내가 이렇게 해석해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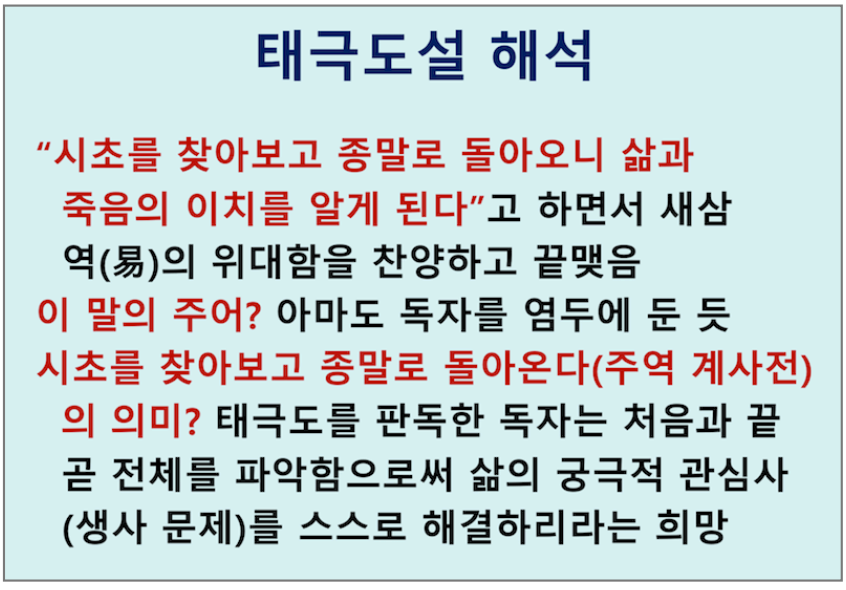


[그림 14] 태극도설 해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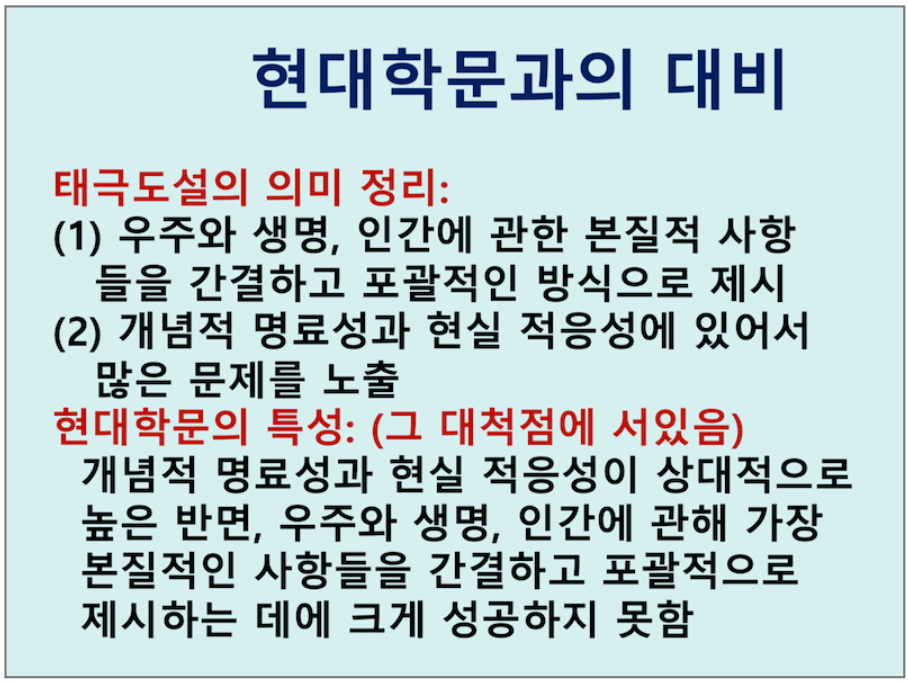
[그림 15] 태극도설 해석 (5)

- 그림 15에서 '성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생명 개념을 통해서 온생명을 '나'로 여기는 존재가 생각하는 내용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적어본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안다는 것, 생명 개념과 온생명 개념을 설혹 합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나'다 하는 심정적 장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심정적 장벽은 내 몸 둘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생명을 '나'로 여기기가, 즉 성인의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다.



[그림 16] 태극도설 해석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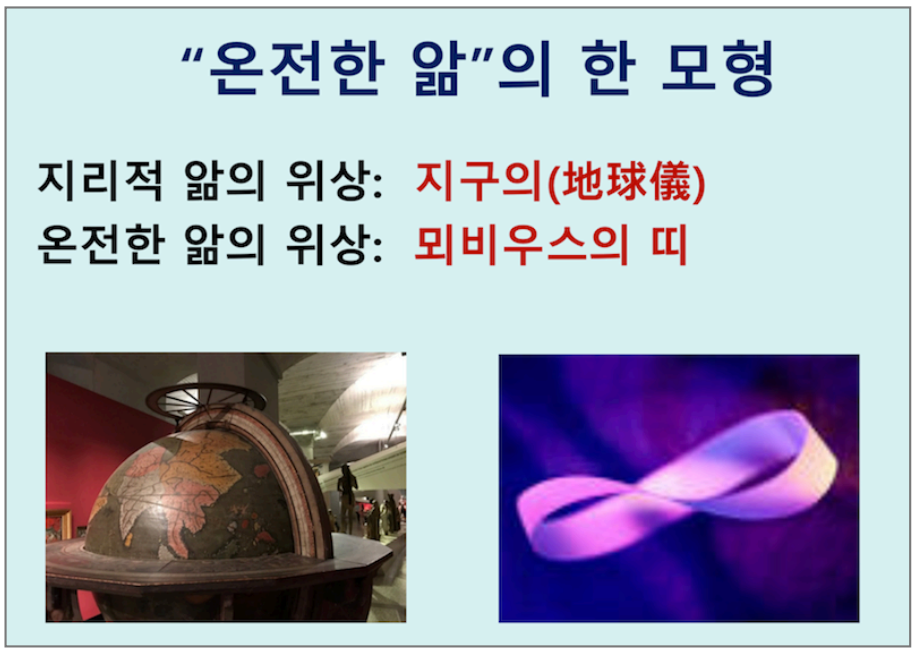
- 그림 16에서, "시초를 찾아보고 ... 이치를 알게 된다"고 했는데, 누가 하는 것인지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아마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림 17] 태극도설과 현대학문과의 대비

〈최〉 이렇게 보니 태극도설과 현대학문이 크게 대비된다. 그렇다면 이제 과제는 현대학문의 장점을 살리고 태극도설의 이런 시도를 살리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 그래서 그림 18처럼 '온전한 앎'의 모형을 생각해 보았다.



[그림 18] "온전한 앎"의 한 모형

끝.

녹취: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 알림: 본문의 그림은 모두 장회익선생님의 강의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의 강의자료는 녹색아카데미 웹사이트에서 해당 대담의 녹취 글이나 세미나 공지 글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댓글이나 의견은 녹색아카데미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철학 세미나 게시판과 공부모임 게시판에서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녹색아카데미